

곡성군, 초등 영어 캠프...“환경도 생각하고 영어도 배우고”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친환경 영어캠프 인기리에 마무리

귀촌 도시청년들 참여해 지역 청년 활동 모델 제시하기도

지난 17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사장 유근기)이 미래교육관 외국어체험센터에서 실시한 친환경 영어캠프 'Eco Echo Festival(이하 친환경 영어캠프)'이 인기리에 종료됐다.

이번 친환경 영어캠프는 지역 8개 초등학교의 3~5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초 50명을 정원으로 모집했지만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4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총 3기수를 운영하게 됐다.

참가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친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창의융합 활동을 체험하여 관련된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원어민과 내국인 영어강사진이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

게 영어 학습을 유도했고, 업사이클링, 캘리그라피, 자연미술, 음악출렁기 등 활동 자체도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 및 발표 활동에서는 친환경 영어캠프의 교육적 효과가 돋보였다. 아이들은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함께 토론하고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PPT로 발표했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지식교육을 넘어 환경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세상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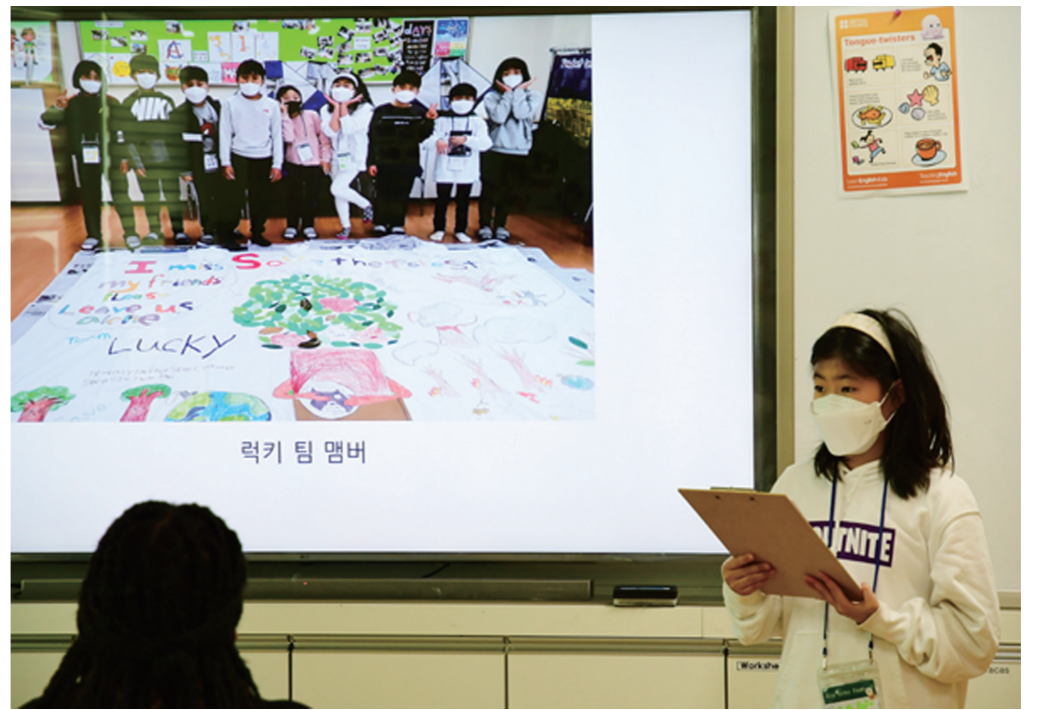
캠프 운영에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이번 캠프에는 곡성군에서 청년 인구유입 정책

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춘작당 프로그램(곡성에서 100일 살기 청년 프로젝트) 2기생 일부가 참여했다. 청춘작당을 통해 곡성에 정착하기로 한 푸른구름팀은 창의체험활동 기획과 운영을 맡으며 곡성 외국어체험센터와 플라보(협력)하며 캠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도시청년이 농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청년과 지역과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평소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영어캠프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도 생각해보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영어와 친해져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럭키 팀 멤버



무안교육청, '학부모 교육품앗이 무안모아'

교육부 시도특색사업 3년 연속 선정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2019년~2021년 교육부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도특색사업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연속 사업으로 선정된 '교육품앗이 무안모아'는 지역내 학부모 연합 조직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로 학부모가 먼저 배워서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기부로 '내 아이만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 학부모가 선생님이 되어 지역학생 교육에 참여하는 마을중심 교육공동체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안모아는 학부모 및 지역민 대상 재능기부 강사 양성 '무안모아 학부모 아카데미'와 '재능나눔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

다. 재능기부 강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지원 및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자기주도학습, 책놀이독서코칭, 전래놀이, 밸런스위킴PT로 교육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교육품앗이 무안모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무안군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김란 교육장은 “학부모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단을 발족하여 교육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학부모 재능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시교육청, 3월 등교개학 준비 전체학교 특별방역 실시

광주지역 전체 523교, 개학·등교수업 확대 학교방역 지원체계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 신학기 정상 등교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광주지역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등교개학 준비 특별방역을 오는 24일~3월1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특별방역은 개학과 등교수업 확대를 고려해 신학기 시작 전 끝마칠 계획이다.

특별방역은 광주지역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대안학교(본청·직속기관 포함) 523교를 27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 ULV초미립자살균 살포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종교 관련 집단감염 사례에서 논

란이 된 방역 사각지대의 비인가 교육시설 30개소도 특별방역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시교육청은 특별방역이 짧은 기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역소독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예방적 조치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신학기 학교방역 준비 및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방역체계를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담양군, 담양교육지원청과 진로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대나무자원연구소·청소년문화의집 참여...지역에 맞는 진로 체험 기회 확대

담양군은 지난 18일 담양교육지원청과 상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천균 대나무자원연구소장과 김철주 교육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대표자 등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김천균 대나무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간의 진로교육 협력체제를 구축,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전한 자아형성과 직업의식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